



QR코드를 찍어주세요

# KC Newsletter vol.23



## Networks

[NOL-TEC, LCL] POWER-GEN 전시회

[안성유리] 안전사고 없는 회사 만들기

[안성유리] 창립40주년 기념  
(전사원 한마음연수)

[KC환경서비스] 매일경제 주관 eMBA  
12기 과정 이영운팀장 우수상 수상

[KC 코트렐] 『인천 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사업 개발 협약 체결



## Customers

[정유소식] 정유사 고도화 비율,  
현대-GS>에쓰오일>SK 順



[시멘트소식] `시멘트값 갈등'에 건설현장  
긴장

[제철소식]

-파이넥스3공장 착공 세계 최초  
연산 200만톤 규모... 2013년 준공 예정  
-포스하이메탈, 전기로 '파워 온' 조업준비 완료  
-동국제강, 「브」 제철소 8월 착공



## Economic Trend

환율- 7월 원/달러, QE2 종료와 유로존 우려로  
1090원 제한적 상승 돌파 예상

원자재

## KC Edition

직장인을 위한 깨알같은 재테크 상식  
-“금융기관 간 금리비교”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NOL-TEC, LCL] POWER-GEN exhibition  
'Powering a Greener World'

Lodge Cottrell과 NOL-TEC(Europe)은 지난 6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유럽 전력산업 전시회인 "POWER-GEN Europe Conference and Exhibition"에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전시를 수행하였습니다. NOL-TEC(Europe)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덕분에 Lodge Cottrell과 NOL-TEC(Europe)의 공동전시장은 전문적이고도 환경친화적인 느낌을 주어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특별히 이태영 사장님께서 KC그린홀딩스 체제 안에서 관계사들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지시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실천과제

였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고객사들에게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금번 전시에는 KC코트렐 해외사업총괄임원이신 박승원 전무님께서 휴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셨고, 이외에도 NOL-TEC시스템의 대표 Vern Hudalla, NOL-TEC시스템의 사장 Wayne Johnson, Lodge Cottrell의 김성진 법인장님과 인도파트너사인 Kleen Air사 임직원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 Staffs



▶ The exhibition

전시회와 동시에 개최된 컨퍼런스에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시사점, 기후변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에 대한 전망, 미래 에너지공급에 있어서의 석탄연료에 대한 의존도 등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고, Lodge Cottrell과 NOL-TEC(Europe)의 공동전시장에도 100여명의 사람들이 방문하여, 미국, 한국, 영국, 이탈리아 등 각국에서 모인 우리 임직원들과의 미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KC그린홀딩스 관계사들과의 사업 가능성을 인식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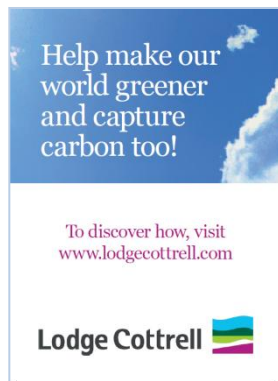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또한 전시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 KC관계사 로고 색상의 꽃을 피우고 향기로운 꽃내음을 내는 “스위트피” 씨앗을 특별 제작한 봉투에 담아 선물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고객들에게 발전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방지에 기여하는 당사를 널리 알리고, 동시에 식물 재배를 통한 탄소 저감운동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Lodge Cottrell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고, “스위트피 재배방법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라는 문구가 인쇄된 봉투에 넣어 배부함으로써 당사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KC그린홀딩스는 이런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www.lodgecottrell.com](http://www.lodgecottrell.com) 참조)



▶ 스위트피(Sweet pea)

한편, 유럽 전역에서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인 바이오메스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공동전시장을 찾은 방문자들은 바이오메스 영역에서 전문성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NOL-TEC유럽을 통해 해당 영역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NOL-TEC유럽은 금번 전시회에서 Fly ash handling system에 Double Ceramic Disc valve를 적용한 신기술을 선보여 산업폐기물업계 관련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적은 유지관리 비용과 장기간의 수명,

-425도에 이르는 고온의 연마입자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the double ceramic disc valve

그 외에도 바이오메스 인젝션시스템, Sorb-N-Ject 기술 등 NOL-TEC유럽의 제품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Staffs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등향

## 경제 등향

## 기획특집

Lodge Cottrell은 대표 제품군인 분진설비에 대한 논의 외에도 탈질 설비, 가스처리설비 등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성과 오랜 경험을 갖춘 KC그린홀딩스 관계사들의 지원을 통해 고객들의 관심에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시장에는 Lodge Cottrell과 NOL-TEC (Europe)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번 전시회 참가는 양사에게 있어 효과적인 투자였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 독일 콜로네에서 개최되는 파워젠 유럽 2012에도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당장 2012년 2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파워젠 중동 참여를 위해 밀라노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다시 전시회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Written by Morris(Lodge Cottrell), Fabio Novelli(NOL-TEC Europe) / 번역 : 윤제연(Lodge Cottrell)

자료 취합과 번역에 힘써주신 점 감사합니다.



▶ Staffs

The last page(3/3)

## [안성유리]안전사고 없는 회사 만들기 안성유리 무재해 4배수(1200일) 달성!!!

지난 2010년 9월 제 14호 KC 뉴스레터에 안성유리 무재해 3배수 달성소식을 전해드린 게 엇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시 무재해 4배수 달성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무재해 4배수 (1200일, 기간 : 2008. 2.26~2011. 6. 9. ) 달성일인 2011년 6월 9일은 안성유리 창립 40주년 기념일이기에 더욱 뜻 깊고 값진 자축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리병 제조업은 자동화 제병기계 및 검사기, Batch Plant 설비, 수·배전 설비 등을 갖춘 전형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많은 위험요인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도 안전을 최우선 경영가치 중 하나로 인식하여 노력한 전 임직원들의 마음가짐과 수고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무재해 5배수 달성일은 시간단위(근무인원 추정)로 환산하여 2012년 6월말경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인 2로 해체공사 및 신규사업 Project 관련 공사를 무사히 잘 마무리하고 안전의식을 생활화하여 안성유리의

안전문화가 지속되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KC그린홀딩스 및 Network 회사 모든 직원들의 무재해를 기원 드리며 더욱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유리공업㈜ 생산팀 SEQ 김순오 과장  
(sokim@asglass.co.kr)



▶ 무재해 4배 달성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 [안성유리] 창립40주년 기념 전사원 한마음 연수 - 중국 황산을 다녀오다...



[재무관리팀 장세은]

선물과도 같았던 안성유리 창립 40주년  
기념 중국한마음연수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유리공업 재무관리  
팀 신입사원 장세은이라고 합니다. 이제  
입사한지 3개월이 지나서 곧 수습을 마무  
리 하고 안성유리의 정식 가족이 됩니다.

1971년 6월 9일 설립한 안성유리는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  
였으며 이를 기념하여 전 직원이 2박3일간 중국 황산과 항주로 한  
마음연수를 다녀왔습니다.

6개월간의 중국 교환학생 시절 중국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지만, 황  
산과 항주는 가 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2박 3일간의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회사를 사랑하게 되었고, 직원  
들간의 화목한 모습을 본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2박 3일간의 즐거운 여정

중국에 도착하여 처음 간 항주의 동방문화원에서는 '역시 중국사람  
들은 무엇을 하든 규모있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였고, 송성가무  
쇼에서는 중국 특유의 노래와 멋진 곡예, 역사를 배경으로 한 화려  
한 춤과 조명에 잠시도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주일정인 황산 트래킹.

평소에 등산을 좋아했던 저는 많은 기대를 안고 케이블카를 타고  
산 중턱에 다다랐습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수려한 경  
치 하나하나가 눈에 쏙 박혀 머릿속 한 가운데 자리잡아 지금도 잊  
혀지지 않습니다. 자연이 만든 절벽, 바위, 나무들... 하나의 경치라  
도 빠뜨리지 않으려 능선을 따라 산을 오르내리는 내내 연신 카메  
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시계방향부터 1. 송성가무쇼 2.청대옛거리, 3. 황산 4.서호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사우들과 함께 산을 오르는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뒤쳐지는 동료들을 기다리고 격려해주는 모습은 당사의 사훈인  
인화와 협동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  
진 여정이어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신선한 기운이 가득 차 올랐습  
니다.

마지막 날. 중국의 몇 안 되는 큰 호수 중에 하나인 서호에 들렀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가르는 기분이란... 따뜻한 햇빛과 함께 마음도 싱  
그러워졌습니다.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 50주년, 100주년을 향한 안성유리의 번영을 위해 파이팅!

일정을 모두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더 가까워진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여행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내내 저를 챙겨주신 안성유리 어머니, 아버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50주년, 100주년을 향한 안성유리의 장수와 번영을 기원합니다.

안성유리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안성유리공업㈜ 재무관리팀 장세은  
(sejang@asglass.co.kr)



우측부터 1차~3차 단체 기념 사진 ( 안성유리 제 40주년 기념 중국한마음 연수. 그 아쉬움을 뒤로 하며...)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사 등향  
경제 등향  
기획특집

[KC환경서비스] 매일경제 주관 eMBA 12기 과정  
이영운팀장 우수상 수상

6월 18일(토)에 KC환경서비스의 이영운 팀장이 매경 eMBA 과정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전략적 사고, 마케팅, 회계, 재무, 인사노무관리, 글로벌경영 등 6개 분야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그 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 이루세요!

KC환경서비스 이정식 팀장  
(jslee@kc-enviro.com)



▶ '매일경제' 자료



▶ 우수상 수상



## CONTENTS

## 인사말씀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KC 코트렐] 『인천 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사업 개발 협약 체결

지난 6월 한국남부발전과 “인천 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하여 사업개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 수산정수사업소 내에 KC코트렐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준공 조건부로 한국남부발전이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 인천 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사업비 : 42.2억원

시설용량 : 1,000kWp

공사기간 : 2011. 6. ~ 2011. 9.

시행자 : KC수산태양광발전(주)

시공사 : KC코트렐(주)

인수자 : 한국남부발전(주)

KCSE/태양광사업팀 이은정  
(eunjung@kc-cottrell.com)



- 인천 수산정수사업소 태양광 건설사업 조감도 -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정유소식] 정유사 고도화 비율,  
현대·GS>에스오일>SK 順

한신평 “정유사의 체질변화” 리포트 발표  
대규모 정제 시설 투자로 원가 경쟁력 확보

국내 정유업계에 고도화설비 바람이 불면서 정유산업이 안정적인 내수산업에서 수출형 정치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주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다.

한국산업평가는 '정유사의 체질변화-변곡점의 방향성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의 메이저 석유기업과 비교하면 국내 정유사들은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독립계 정유사만 놓고 보면 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가 각각 울산, 여수, 온산, 대산 석유화학 단지 안에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상위 3사의 정제시설은 단일 공장 기준 세계 3위, 4위, 6위권에 위치해 있다. 적극적인 고도화 및 석유화학 시설투자로 생산 설비의 효율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신평은 “2007년 이전까진 국내 정유사 수익성 지표가 해외 주요 기업들에 비해 높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는 넘어서고 있다”며 “정제마진 하락에도 고도화시설 투자와 석유화학, 자원개발, 도시가스, 발전 등 사업다각화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투자 진행 중인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2011년 수익성이 추가로 개선될 것”이라며 “독립계 정유사 중에선 국내 정유사들이 매우 경쟁력 있는 수익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규모와 판매량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순으로 SK이노베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고도화비율에선 2011년을 기점으로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가 주도를 하고 있고, 에스오일이 뒤를 잇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상대적으로 고도화시설 투자가 미미했지만 연결 관점에서 자원개발, 석유화학, 유통업 사업이 실적 변동성은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S칼텍스 역시 관련 사업들을 통해 영업이익 변동성을 낮췄다.

에스오일의 경우 고도화설비 확충을 통해 실적 향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 한신평은 “2011년부터 석유화학 설비 증설로 사업다각화 및 이익안정성 수준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사업다각화 수준이 미약하고, 고도화 비중이 낮아 이익변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고도화설비 비중이 대폭 늘었고 유통기류, 전력 생산, 석유화학 자회사의 설비 증설 계획 등으로 실적 개선과 변동성 완화가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처 : 조선일보 2011-06-28

## 정유사별 경쟁력 지표 비교

구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상업정제시설	1,115	760	580	390
중질유분해시설	172	215	150	120
고도화율	15.40%	28.30%	25.90%	30.80%
주유소 개수	4,593	3,488	1,914	2,429

자료 : Petronet 각 사 사업보고서

주 : 고도화율 = 중질유분해시설/상업정제시설

## [시멘트소식] `시멘트값 갈등`에 건설현장 긴장

시멘트 값 30% 인상 여부를 놓고 시멘트 업계와 레미콘 · 건설 업계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수도권 대형 공사장에서 레미콘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연합회는 “시멘트 업계의 시멘트 가격 30% 인상 요구가 적정하지 않다”며 “청와대 · 지식경제부 등에 가격 조정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경영 악화에 빠진 시멘트 업계의 가격 인상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를 수용할 경우 레미콘 가격이 17%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 인상을 반영해야 할 건설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도미노 원자재 가격 인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시멘트 가격을 한 자릿수로 단계적 인상을 하되, 인상 시점을 7월부터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대형 레미콘 회사와 건설사부터 우선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광주 · 전남지역 23개 레미콘 업체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레미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시멘트 가격 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수도권 레미콘 업체들도 이달 말부터 무기한 생산 중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시멘트 공급 가격과 레미콘 납품 가격으로 ‘출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성양양회와 동양시멘트** 등 주요 대기업 시멘트 업체 7곳은 지난 4월1일부터 레미콘 주원료인 시멘트 값을 종전 t당 5만 2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30% 인상했다. 이후 일부 레미콘 업체들이 이를 수용했으나 건설 업체에서 레미콘 가격 인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시멘트 업계도 늘어나는 적자와 원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출처 : 한국경제2011.06.21]



▷ 관련사진

시멘트값 22% 인상 추진...갈등 '점화'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제철소식]

## 파이넥스3공장 착공 세계 최초 연산 200만톤 규모... 2013년 준공 예정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연산 2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공장을 착공했다.

포스코는 6월 28일 포항제철소에서 김항식 국무총리,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정준양 회장 등 국내외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이넥스3공장 착공행사를 가졌다.

▶ 포스코가 6월 28일 포항제철소에서 세계 최초로 연산 2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3공장을 착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파이넥스3공장 착공 버튼을 누른 후 착공을 축하하고 있다.

정준양 회장은 "세계 철광석 매장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저급 분철광석과 일반탄의 사용이 가능한 파이넥스는 기존 고로공법에 비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세계 철강업계의 후발주자이던 포스코가 녹색 제철기술을 선도하는 리더로서 세계 철강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항식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포스코의 기적과도 같은 성장은 국민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신감을 심어 주었을 뿐 아니라, 조선이나 자동차 등 다른 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돼주었다"고 말하고 "이번 연산 200만 톤 규모의 제3세대 파이넥스공장은 세계 철강시장에서 포스코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번 연산 2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3공장은 비(非)용광로 쇠물 제조법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파이넥스 설비는 코크스 및 소결 제조공정을 생략하고, 값싼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언탄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비나 생산원가를 15%나 낮출 수 있다. 더욱이 황산화물·질산화물·비산먼지는 각각 용광로의 3%, 1%, 28% 수준으로 배출돼 친환경 녹색기술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번에 포스코가 2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설비를 건설함에 따라 근대 철강 제조기술을 도입한 지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도 철강기술 자립 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세계 철강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 등 도움을 받던 입장에서 세계 철강기술을 선도하는 철강사로 위상이 바뀌게 된다.

포스코는 1992년부터 파이넥스 공법의 연구에 들어가 1996년에 파일럿 플랜트를 가동했다. 이어 2003년 6월에 연산 60만 톤 규모의 데모플랜트를 건설해 상용화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연산 150만 톤 규모의 2세대 파이넥스2공장을 가동하는 데 성공했으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제3세대 파이넥스3공장이 준공되는 2013년에는 포항제철소 전체 쇠물 생산량의 25%인 410만 톤을 파이넥스 공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저가원료 사용에 따른 연간 원가절감액이 17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포스코 신문(6/30, 제875호)

## 포스하이메탈, 전기로'파워 온'조업준비 완료

포스하이메탈(사장 김선기)이 6월 14일 비전센터에서 김준식 광양제철소장, 황종식 동부메탈 상무, 김선기 포스하이메탈 대표이사 등 관계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로 가동 행사(Power On)를 가졌다.

전기로 파워 온은 전기로에 최초의 전원을 공급하는 절차로, 사실상 본격적인 조업체제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페로망간(FeMn) 전기로(40MVA)는 1회 40톤의 생산량을 갖추고 있으며 정상 가동 시 하루 240톤 생산이 가능하다.

김선기 사장은 "이번 전기로 파워 온은 페로망간 생산을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세계 최고의 고순도 페로망간 제품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30일 고순도 페로망간 7만 5000톤급 설비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포스하이메탈은 BHPB사·아스망(Assmang)사·에라메트(Eramet)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망간 광석을 페로망간 제품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 포스코 신문(7/23, 제874호)

## 동국제강, 「브」제철소 8월 착공

2014년 말 1단계 준공 ... 동국·포스코·발레 3사 공동 경영

동국제강(회장 장세주)이 오는 8월 말 포스코, 발레사와 합작으로 진행하는 브라질 고로 착공식을 한다.

9일 오후 개최된 철의 날 기념식 직후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부지 정리공사와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파트너가 정해진 만큼 8월 말쯤에는 별도의 세레모니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착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부지 조성공사가 처음부터 총 600만톤 규모에 맞춰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300만톤 고로가 상업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2단계 투자를 발 빠르게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공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1단계에서는 하공정 투자가 없다"면서도 "2단계에서는 하공정 투자를 검토할 것이고, 아마 열연공장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1단계는 전통 고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2단계 투자에서는 포스코와 논의를 거쳐 파이넥스 공법 적용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이 장 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브라질 합작제철소는 발레, 동국제강, 포스코 3사가 공동경영위원회를 꾸려 운영된다. 3사가 공동경영체제 아래에서 제철소 관리, 기술개발, 영업 등으로 세분화된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철강신문(7/13, 제1651호)



포항3 FINEX 착공식



▶ 포항제철소 내 연산 150만톤 규모 파이넥스 2공장 전경

## [환율시장]

##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동향  
경제 동향  
기획특집

7월 원/달러, QE2 종료와 유로존 우려로 1090원 제한적 상승 돌파 예상



&lt;출처:외환은행 홈페이지&gt; 원/달러 환율 추이 (최근6개월)

7월 원/달러 환율은 유로존 우려와 2차 양적 완화 종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 불안정성으로 인해 6월 중 거래범위 상단인 1090원 상향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외국인이 원화채권 매수에 적극적이고, 내수 균형성장을 강조하는 신임 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환율 상승에 적극 개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환율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과 미달러의 가치는 역의 관계에 있다. 7월 중 미국의 QE2(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정책)가 종료되고 원자재 가격 안정을 통한 경기부양 노력에 따라 환율상승(미달러 가치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월 중순까지는 그리스 관련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유로존 은행의 신용 리스크 우려가 지속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불안정한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과 미 국가부채 상환선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미달러의 상승 제한요인이다.

국내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외국인의 주식 매수는 소극적이겠지만, 글로벌 채권펀드와 아시아 중앙은행의 원화채권 매수는 꾸준할 전망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 시 채권매수 유인은 증가하고 원화환율의 상승은 채권 저가매수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주식자금과 달리 채권자금은 원화 환율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임 재정부장관 취임 후 물가안정과 내수균형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스탠스는 향후 외환시장에서 환율 상승에 보다 적극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6월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원화 채권매수와 당국의 매도개입이 대외불안 요인에 의한 환율 상승 압력의 상당부분을 차단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신흥국은 물가상승 압력이, 선진국은 재정부담과 성장률 둔화가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국 통화들의 소위 Ugly Contest 속에 스위스 프랑은 미달러와 유로화에 대해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며 세계 통화시스템 및 글로벌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다. 양적 완화 종료에 의한 달러 반등도 지속성이 미덥지 않고, 유로존은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재정문제를 안고 있고, 일본은 국가부채와 디플레이 압력이 문제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기 전까지 달러의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며, 이러한 환경은 상대적으로 재정과 성장률이 양호한 아시아국가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달러 상승에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제한적일 또 다른 이유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7월 중 환율은 1차 1090원, 2차 1100원을 테스트하는 제한적인 상승 흐름 속에 1070~1105원 사이에서 등락이 예상된다. 원/엔 환율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 속에 1340원 중심의 등락이 예상되며 예상 거래범위는 1320~1360원이다. 원/유로는 유로존 우려로 최근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1520~1530원 하향돌파 시도가 예상되며, 예상 거래범위는 1500~1560원이다.

## &lt;여기서 잠깐!!&gt;

뉴스레터 6월호의 환율시장 동향에서는 원/달러 1100원 상향 돌파를 시도하지만 그리스 위기로 인하여 지지선이 강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1080원대 후반까지 진입하며, 원화 약세를 보였으나, 월말에 가서는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출 출회 지속과 외국인의 채권매수, 당국개입 등으로 1070원대로 내려앉았다. 전체적으로 1070~1090원의 비교적 안정적인 박스권 내의 등락을 보여주었다.

출처: 삼성선물 7월 금리환율 전망 2011.06.27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cottrell.com)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동향

## 경제 동향

## 기획특집

## 원자재 시장

[열연] 유통가격은 반전 양상

-수입산 재고 감소 영향, 국산은 아직까지 가격변동 없어

[KMJ NEWS 07월01일]

어려움을 겪었던 열연강판 유통시장이 반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국산대비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를 해왔던 수입산 열연강판 일부 품목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중소 유통업체들의 경우 재고 감소를 대비해 물량확보에 나서면서 수급타이트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에 하락세를 유지하던 수입산 열연강판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 따라서 톤당 81만원까지 하락했던 수입산 열연강판의 가격은 대략 톤당 82만원 안팎으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가격이 높아 구매를 꺼려왔던 국산에 대해 다시 구매를 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재고 문제로 상당수의 수입업체들이 오포를 미루어 왔다"며 "반면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필수 수요를 중심으로 제품 사용이 이어지고 있어 재고가 계속해서 낮아졌다. 이에 수입산을 중심으로 수급타이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수입산을 대신해 국산으로 전환하는 수요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입산과 달리 국산의 유통가격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국산 재고가 높은 동시에 비수기를 앞두고 일부 업체들이 재고를 낮추기 위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산 열연강판 가격은 여전히 톤당 90만원대 초반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냉연] 올 6월 냉연유통, "판매액-상황 큰 변화 없었다"

-냉연제조사별 6월 공장도價, 전월과 동일

-6월 냉연SSC 판매 상황, "어려움 더 심해져"

-7월 판매 전망, 냉연SSC "일단 팔고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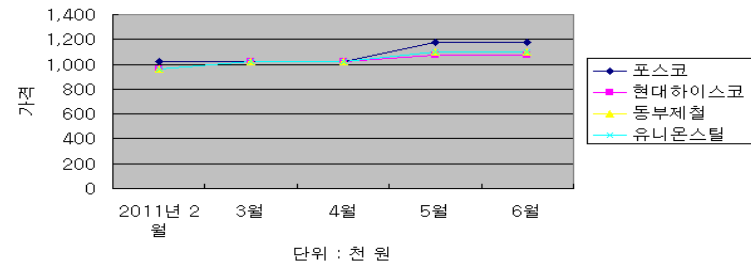
[KMJ NEWS 07월01일]

냉연제조사들의 지난 6월 공장도 가격은 5월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경우 톤당 16만원 인상안(냉연강판 기준)을 그대로 시행했으며 동부제철과 유니온스틸은 톤당 8만원을 인상한다고 지난 5월 말 발표한 이후 6월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대하이스코 경우 톤당 5만3,000원 인상 후 6월에 톤당 2만7,000원을 추가로 인상함으로써 총 톤당 8만원 인상을 하게 됐다. 냉연제조3사는 현재 냉연SSC 별 제품 구입량 및 운영 현황 등 평가에 따라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상 시행하는 것으로 현 가격대를 크게 뒤집을 만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7월 판매 전망, 냉연SSC "일단 팔고 보자"

7월부터는 건설경기 비수기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약해지는 만큼 냉연SSC들이 가격 인상분을 전가하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코 냉연SSC 경우 톤당 8만원 인상안 전가를 고수할 방침이며 타사 냉연SSC들은 6월과 동일한 가격으로 일단 판매한 뒤 차후 냉연제조사로부터 구체적인 할인안을 제시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의 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적자 판매를 불사하더라도 재고 수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냉연SSC들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냉연제조사들의 명확한 가격 정책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불안 요소를 안고 제품 판매하는 냉연SSC들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냉연제조사 CR 공장도 가격 추이



[STS] STS 유통 가격 상향 조정, 받아들여질까?

-7월초 판매·니켈價 동향 좌우

[KMJ NEWS 07월04일]

스테인리스 유통업체들이 7월 들어 판매가격을 톤당 10만원 내외 회복한 가운데 일단 시장에서는 올린 가격 정착이 니켈 가격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요가 주춤해질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이 유통가격 원상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지만 니켈 가격 반등이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달 말 스테인리스 유통업체들은 니켈 가격 약세와 수요 저하 영향으로 7월 제조업체들의 판매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유통 판매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코를 비롯한 스테인리스 제조업체들이 최근 니켈 가격과 판매량이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만큼 무리한 가격 인하보다는 동결을 선택하면서 유통업체들도 7월부터 판매 가격을 6월말 인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단 유통업체들은 판매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수요업체들의 구매 움직임이 여전히 주춤해져 있다고 우려했다. 7월초 결국 니켈 가격 움직임이 변수겠지만 최근과 같이 니켈 가격의 회복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유통업체들의 가격 회복 노력은 보다 수월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형강] 형강 제조사, 7월 1~3만원 유통 할인 폐지 통보

-H형강 톤당 3만원, 일반형강 톤당 1만원 수준

[KMJ NEWS 07월06일]

형강 제조업체들이 자사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7월 톤당 1~3만원씩 유통 가격 할인 폐지를 통보하고 나섰다. 형강업체에 따르면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주요 제조업체들은 자사 거래처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H형강 톤당 3만원, 일반형강 톤당 1만원 수준의 할인 폐지 의사를 밝혔다. 최근 거래 가격은 6월말 기준 제조업체들의 유통 H형강 판매 가격은 톤당 94만5,000원~95만5,000원 수준에서 마감하고 있다. 7월 유통 가격 할인이 폐지될 경우 H형강 가격은 톤당 98만원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형강의 경우 6월 마감가격은 톤당 89만5,000원 수준으로 표면 가격인 톤당 95~96만원에 할인폭이 큰 편이다. 이번 톤당 1만원의 할인 폐지가 적용될 경우 7월 가격은 90만원 초반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 영향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이처럼 할인폐지를 통보하고 있다.

## [기획특집] 직장인을 위한 깨알같은 재테크 상식 - "금융기관 간 금리, 비~교해 봐~"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 고객 통향

## 경제 통향

## 기획특집

## one, 정기적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CMA..

이 중 한두 개쯤 가  
지고 계실 테지만,  
금리비교 꼼꼼히 해  
보셨나요?

KC뉴스레터 금월 호  
에서는 재테크에 관  
한 알찬 정보를 드리  
고자  
금융기관 간 금리비교  
를 기획특집으로 구  
성하였습니다.

바쁜 임직원 여러분  
들을 위해  
BEST3만 요약하여  
알려드리니  
유용하게 정보를 활  
용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금융기관명	상품명	세전금리
1	기업은행	서민섬김통장(적립식) 	3.90%
2	씨티은행	어학연수적금 	3.80%
3	우리은행	정기적금 	3.80%
4	농협	정기적금 	3.60%
5	우리은행	우리자유적금 	3.60%
6	수협은행	파트너가계적금 	3.60%
7	외환은행	정기적금 	3.50%
8	KB국민은행	e-파워자유적금 	3.50%
9	우리은행	우리V자유적금 	3.50%
10	KB국민은행	일반정기적금 	3.50%
11	수협은행	독도사랑학생부금 	3.50%
12	기업은행	IBK e-클럽통장(자유적금) 	3.50%
13	한국산업은행	@ best자유적금 	3.43%
14	수협은행	신자유부금 	3.45%
15	수협은행	라이프 다기능 적금 	3.45%
16	씨티은행	네티즌부금 	3.40%
17	외환은행	매일매일부자적금 	3.40%
18	KB국민은행	KB상호부금[정액적립식] 	3.40%
19	하나은행	오필송코리아적금(정액적립식) 	3.40%
20	씨티은행	정기적금 	3.40%
21	기업은행	IBK내맘대로적금 	3.30%
22	우리은행	마이스타일(My Style) 자유적금 	3.30%
23	KB국민은행	KB상호부금[자유적립식] 	3.30%
24	농협	평생우대적금 	3.30%
25	우체국	가계우대정기적금	3.30%

&lt;정기적금 금리비교&gt; 은행

번호	금융기관명	상품명	세전금리
1	서울)현대스위저축은행	공동구매 정기적금-2차 	6.00%
2	서울)현대스위저축은행	다함께 정기적금 	5.70%
3	서울)제일 II 저축은행 [구.제이원]	정기적금 	5.70%
4	서울)제일저축은행	정기적금 	5.70%
5	서울)프라임저축은행	프라임 e정기적금 	5.60%
6	서울)현대스위저축은행	e-현대스위스정기적금	5.60%
7	서울)오릭스저축은행 [구.푸른2]	정기적금	5.50%
8	서울)프라임저축은행	정기적금 	5.50%
9	서울)신민저축은행	정기적금	5.50%
10	서울)대영저축은행	정기적금 	5.50%
11	서울)W저축은행	정기적금 	5.50%
12	서울)솔로몬저축은행	정기적금	5.50%
13	서울)상성저축은행	정기적금	5.50%
14	서울)동부저축은행	정기적금 	5.40%
15	서울)한국저축은행	정기적금 	5.40%
16	서울)동부저축은행	도리도리점점 정기적금 	5.40%
17	서울)동부저축은행	알콩달콩 정기적금 	5.40%
18	서울)진흥저축은행	정기적금 	5.40%
19	서울)현대스위스 II 저축은행	정기적금 	5.40%
20	서울)한신저축은행	e-정기적금 	5.40%
21	서울)스카이라저축은행	정기적금 	5.30%
22	서울)민국저축은행	e-행복 정기적금 	5.30%
23	서울)교원나라이저축은행	정기적금 	5.20%
24	서울)신안저축은행	정기적금 	5.20%
25	서울)교원나라이저축은행	신용부금 	5.20%

&lt;정기적금 금리비교&gt; 상호저축은행

1. 고금리 정기적금 (은행)  
-BEST3

- 1) 기업은행 서민섬김통장 : 연3.9%
- 2) 씨티은행 어학연수적금 : 연3.8%
- 3) 우리은행 정기적금 : 연 3.8%

2. 고금리 정기적금  
(상호저축은행)  
-BEST3

- 1) 현대스위저축은행  
공동구매 정기적금 2차 : 연 6.0%
- 2) 현대스위저축은행  
다함께 정기적금 : 연 5.7%
- 3) 제일 II 저축은행  
정기적금 : 연 5.7%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적금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 two, 정기예금

## CONTENTS

##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향  
경제 통향  
기획특집

정기예금은 매달 일  
정 금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  
과 달리 이미 목돈  
을 가지고 계신 분  
들께서 자금운용을  
하는데 유용합니다.

번호	금융기관명	상품명	세전금리
1	KB국민은행	KB Smart폰 예금 	4.40%
2	제주은행	F1정기예금	4.40%
3	한국산업은행	@best인터넷산금채 	4.35%
4	제주은행	사이버우대정기예금 	4.30%
5	부산은행	e-푸른바다 정기예금 	4.30%
6	한국산업은행	e-Sense 정기예금 	4.20%
7	광주은행	플러스다모아예금(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4.15%
8	광주은행	실버라이프예금(5백만원-5천만원미만) 	4.15%
9	대구은행	자유만기회전예금	4.10%
10	KB국민은행	e-파워정기예금 	4.10%
11	기업은행	서민섬김통장(거치식) 	4.00%
12	우체국	인터넷 커피언 정기예금 	3.95%
13	기업은행	IBK e-컬럼통장(정기예금) 	3.90%
14	우리은행	우리로모아정기예금 	3.90%
15	한국산업은행	kdb프리미어 정기예금 	3.85%
16	우리은행	O-range정기예금 	3.76%
17	신한은행	U드림 CD연동정기예금(인터넷) 	3.81%
18	신한은행	U드림 정기예금(온라인전용) 	3.76%
19	한국산업은행	W star 정기예금 	3.62%
20	외환은행	YES큰기쁨예금 	3.60%
21	신한은행	Tops CD연동정기예금	3.81%
22	수협은행	사랑해정기예금 	3.55%
23	전북은행	시장금리부정기예금 	3.55%
24	한국산업은행	실세화전정기예금 	3.48%
25	하나은행	하나셀프리자정기예금 	3.50%

&lt;정기예금 금리비교&gt; 은행

번호	금융기관명	상품명	세전금리
1	서울)신안저축은행	정기예금 	5.50%
2	서울)프라임저축은행	프라임 e-정기예금 	5.50%
3	서울)프라임저축은행	정기예금 	5.30%
4	서울)솔로몬저축은행	정기예금 	5.20%
5	서울)대영저축은행	정기예금 	5.20%
6	서울)제일저축은행	정기예금 	5.20%
7	서울)W저축은행	정기예금 	5.20%
8	서울)서울저축은행	정기예금 	5.20%
9	서울)제일 II저축은행 [구.제이원]	정기예금 	5.10%
10	서울)스카이라저축은행	정기예금 	5.00%
11	서울)민국저축은행	e-행복 정기예금 	5.00%
12	서울)신민저축은행	정기예금 	5.00%
13	서울)한국저축은행	정기예금 	5.00%
14	서울)예가람저축은행	정기예금 	5.00%
15	서울)진흥저축은행	정기예금 	5.00%
16	서울)동부저축은행	동부 Hi-High 정기예금 	4.90%
17	서울)민국저축은행	정기예금 	4.90%
18	서울)현대스위스II 저축 은행	정기예금 	4.90%
19	서울)현대스위스저축 은행	정기예금 	4.90%
20	서울)삼성저축은행	정기예금 	4.90%
21	서울)동부저축은행	정기예금 	4.90%
22	서울)HK저축은행	정기예금 	5.00%
23	서울)모락스저축은행 [구.푸른2]	정기예금 	4.80%
24	서울)푸른저축은행	정기예금 	4.80%
25	서울)한신저축은행	e-정기예금 	4.80%

&lt;정기예금 금리비교&gt; 상호저축은행

1. 고금리 정기예금 (은행)  
-BEST3

- 1) KB국민은행 KB Smart폰  
예금 : 연 4.40%
- 2) 제주은행 F1정기예금 :  
연 4.40%
- 3) 산업은행 u best  
인터넷산금채 : 연 4.35%

2. 고금리 정기예금  
(상호저축은행)  
-BEST3

- 1) 신안저축은행 정기예금 :  
연 5.50%
- 2) 프라임저축은행  
프라임 e-정기예금 :  
연 5.50%
- 3) 프라임저축은행 정기예금 :  
연 5.30%

\*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 CONTENTS

KC네트워크 소식

고객 통행

경제 통행

기획특집



three, CMA

## 1. CMA란?

Cash Management Account의 약자로 어음관리계좌, 종합자산관리계정이라고 한다.

## 2. CMA의 장/단점

1) 장점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불입해도 이자가 붙으며, 이체출금수수료 등의 수수료 면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서비스 및 자동납부, 자동이체 서비스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 혜택이 있다.

2) 단점 : 증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해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일반증권사의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

## 3. 고금리 CMA - Best3

- 1) 메리츠증권증권 THE CMA plus : 연 3.5%
- 2) 금호종합금융 e-plus CMA : 연 3.4%
- 3) 동부증권 HAPPY CMA : 연 3.35%

\*금리는 1일 만기 CMA (수시입출금식)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KC네트워크 임직원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모두 부자 되세요 ^^

출처: 모네타 홈페이지 <http://finance.moneta.co.kr>  
KC 그린홀딩스 유민정 (minjeong@kcgreenholdings.com)

번호	금융기관명	상품명	세전금리
1	메리츠증권증권(구,한불)	THE CMA plus (발행어음형)	3.50%
2	금호종합금융	e-plus CMA <small>인도네시아</small>	3.40%
3	동부증권	HAPPY+ CMA (RP형) 	3.35%
4	동양종합금융증권	CMA-MMW(일복리상품)	3.30%
5	금호종합금융	CMA예금 <small>인도네시아</small>	3.20%
6	동양종합금융증권	CMA-RP(RP형)	3.20%
7	대우증권	대우 CMA-Wrap	3.15%
8	동양종합금융증권	My W 자산관리통장 미지정형(예금자보호)	3.10%
9	서울프라임저축은행	Prime+	3.10%
10	한화	Smart CMA (RP저축형) 	3.05%
11	신영증권	CMA(RP형) 	3.05%
12	NH투자증권	하나로 CMA-RP	3.05%
13	교보증권	교보 plus a CMA-RP형	3.05%
14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CMA(RP형) 	3.00%
15	대우증권	대우CMA-RP	3.00%
16	미래에셋증권	자산관리 CMA-RP형	3.00%
17	현대증권	현대CMA pro(RP형) 	3.00%
18	삼성증권	삼성CMA플러스	3.00%
19	하이투자증권	하이CMA(RP형) 	3.00%
20	신한금융투자(구,굿모닝신한)	신한 S-MORE CMA(RP형)	3.00%
21	HMC투자증권	HMC투자증권 CMA-RP	3.00%
22	대신증권	대신 CMA-RP	2.95%
23	우리투자증권	octo CMA - RP형	2.95%
24	메리츠증권증권(구,한불)	e-CMA	2.60%

&lt;CMA 금리비교&gt; 증권사